

### 전주시, 문화특별시 지정·지원 특별법 제정 정책세미나 개최

# '전주 전통문화, 국가 경쟁력으로'

전주시가 가진 풍부한 전통문화를 문화특별시로 지정, 발전시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40년 동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각종 정부정책 및 예산 지원에서 소외돼왔다.

시는 15일 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문화계,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주시민들과 약속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은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다시 전통이 미래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금의 한옥마을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닌 오랜 기간의 노력과 전주가 지닌 전통문화의 자력으로 이뤄진 결실"이라며 "이제는 전통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문화적 창조에 에너지로 결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은 국가적 과제로 만들어 전주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원도연 원광대 교수도 '전주전통문화특별시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통문화를 산업화할 수 있는 전주의 자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수성,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의 비전 등에 대해 소개하



전주시는 15일 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문화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명곤 전 장관 "지금의 한옥마을, 오랜 기간 노력의 결실"  
김승수 시장 "광역권 도시들과 성장하는 국가적 성장 모델"

고, 문화특별시 지정 효과를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 안영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 전통문화특별시 추진의 국내외 사례와 합리적 추진방안"을 주제로 그간 특별시와 특별자치도 등을 추진해온 타 지역의 사례를 언급한 후, 전주시에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전주시민의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발제' 후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강경환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주의 유무형적 자산을 보호하고 전승 및 창조적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권과 관 주도보다는 학계

와 시민의 폭 넓은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바탕으로 필요한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은 "문화특별시 비전체계부터 참여형 거버넌스 형태의 추진전략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민원탁회의 개최 등 시민과의 폭 넓은 교감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협력적이고 민주적·상향식 정책모델로 만들어 나갈 때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의 당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문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겸 전북일보 편집국장, 이영욱 전주대학교 교수, 이순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주 문화특별시 지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등 성공적인 문화특별시 조성을 강조했다.

시는 이날 정책세미나에 이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핵심공약인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꾸준히 건의하는 한편,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통문화에 강점이 있는 전주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단순히 하나의 도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 도시 및 광역권의 도시들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적 성장 모델이자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이 반드시 관철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지역 국회·지방의회 의원들 '상복 터졌네'

## 김광수 국회의원, 유권자대상 수상

성실한 의정활동서 높이 평가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 시갑)이 15일,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을 수상했다.

직능·소상공인, 골목상권·지역 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은 유권자의 권리 증진과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시상식을 진행하여 왔으며 올해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정책현장에서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고, 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치발전 기여, 선거공약 실천 및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등에 대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내의 특건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예산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아동수당 도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건·복지 분야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섰으며, 상임위원단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 다방면에 걸친 성실한 의정활동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유권자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 더욱 기쁘고 의미가 있다"며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사자 성어처럼 상을 주신 유권자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민생정치·생활정치·소통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국주영은 도의원, 광역의원분야 유권자 대상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은 15일, 유권자 시민행동 등이 주관하는 '2017 제5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의원 분야 유권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권자시민행동,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대표 오호석)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투표의 중요성을 재 확인하고 공약 이행과 골목상권 살리기 우수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의 노고를 기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2천만 시민, 1천만 직능경

제인과 72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개최하고 있다.

주요 공적으로는 △복지사업, 공공교통 활성화 및 녹색교통,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작은 도서관 확대 지원 등 공약이행 분야,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전라북도 대일항공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와 전북도 생명존중 조례, 전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등 입법 분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해사업의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투표의 중요성을 재 확인하고 공약 이행과 골목상권 살리기 우수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의 노고를 기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2천만 시민, 1천만 직능경

###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오정화 의원도 유권자 대상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오정화 의원은 15일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 대상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제정된 상으로 김 의장과 오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화 건의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다.

오 의원은 교육 관련 전 공 경력을 살려 전주시 인

문화 진흥 조례,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며 전주시가 인문학 도시로 성장하고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상을 받은 김 의장과 오 의원은 "오늘 상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려는 뜻으로 알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봉사자로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전주시의회 10대 후반기 의장 및 전북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 삼성 새만금투자협약 체결 촉구, 한국은행 전북본부 회폐수급업무 복구 촉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

마거리, 전라감영으로 유도해 전주 관광의 외연이 원도심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흥기 풍남문상인회장은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이 해당 상인들의 요구대로 전주의 옛 멋과 현재의 감각이 잘 어울려진 간판으로 설치돼 반응이 예상 밖으로 매우 좋아 상가 활성화 등에 매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풍남문과 전라감영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돼 장기적으로는 전라감영 복원과 맞물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특히, 김 의장은 전주시의회 10대 후반기 의장 및 전북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 삼성 새만금투자협약 체결 촉구, 한국은행 전북본부 회폐수급업무 복구 촉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

이번 교육에는 최창우 집적정없는세상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표준계약서 작성방법, 계약갱신 사항, 보증금 사기 예방, 대항력, 우선 및 최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세입자 12명에게 대해 실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인재용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방문

김승수 전주시장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과 국내외 아동친화도시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출장길에 오른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래퍼스 윌과 바젤, 바덴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방문한다.

스위스는 10년 전부터 20개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이중 5개 지자체가 개인증을 받는 등 아동친화도시 정책 우수국가로 손꼽힌다.

김 시장의 이번 방문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해의 사례 방문조사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를 포함한 국내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국내 11개 지자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가한다. /인재용 기자

### 온두레공동체 맞춤형 컨설팅

전주시, 분야별 간담회 실시

전주시가 온두레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주시혁신센터에서 온두레 공동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두레 공동체 분야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분야별 간담회는 공동체들을 사업 성격에 따라 문화/예술, 주민자치, 식품, 교육, 공예/장터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공동체들 상호간 네트워크 형성과 해당분야 멘토단의 사업 컨설팅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주시혁신센터에서 온두레 공동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두레 공동체 분야별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멘토단 사업 컨설팅에는 정진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과 장걸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등 각 분야별 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 공동체들은 상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개별 공동체들의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인재용 기자

### 풍남문 상점가 간판, 전통·현대 조화 이뤄

전주시, 불법 노후간판 철거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간판 교체

낡고 특색 없던 풍남문 상점가의 간판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아름다운 간판으로 탈바꿈됐다.

전주시는 총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전주의 대표보물인 풍남문 주변상가 로터리에서 완상경찰서까지 전라감영 테마거리 130m 구간에 위치한 30개 점포의 간판을 개설했다.

이 사업은 전북도가 주관한 '2016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라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시는 해당 사업구간 내 30개 점포에 설치됐던 48개의 불법 노후간판을 모두 철거하고, 한국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보물인(제308호) 풍남문 등 주변 전통보존구역과 어울리는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했으며, 대상 점포 중 건물외벽이 노후화된 4곳에 대해서는 건물입면을 새롭게 디자인해 교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에는 풍남문 로터리에 위치한 상점들도 간판을 모두 개선한 바 있다.

시는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야시장, 풍남문과 전라감영 복원예정지까지의 간판이 전주의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감각이 결합된 간판으로 바뀐 만큼, 향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풍남문 광장을 거쳐 전라감영 테

마거리, 전라감영으로 유도해 전주 관광의 외연이 원도심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흥기 풍남문상인회장은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이 해당 상인들의 요구대로 전주의 옛 멋과 현재의 감각이 잘 어울려진 간판으로 설치돼 반응이 예상 밖으로 매우 좋아 상가 활성화 등에 매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풍남문과 전라감영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돼 장기적으로는 전라감영 복원과 맞물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시실업률 낮추기 위한 노력

전주시실업률 낮추기 위한 노력

전주시실업률 낮추기 위한 노력

전주시실업률 낮추기 위한 노력

전주시실업률 낮추기 위한 노력